

01. 융합수업

국어 수업에서 시를 읽고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 수용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표현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국어과 영역 중 쓰거나 말하기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국어과 영역뿐 아니라 음악과 가창 영역이나 미술과 표현 영역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미술과적인 요소와 음악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활동 중심으로 교과목을 융합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위주의 융합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표도달이나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각 교과목의 성취 기준을 면밀히 살핀 후 목표 도달에 용이하거나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그 때 비로소 융합 수업 설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 중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에도 반응 중심 학습이 있습니다. 국어과 반응 중심 학습 모형은 수용이론이나 반응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문학 작품을 가르칠 때에 학습자 개개인을 중시하는 모형입니다. 작품에 대한 해석이 독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미술과 교수·학습방법 중 반응 중심 학습은 체험이나 감상 영역의 능력을 기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역시 학습자 개개인의 반응을 학습의 중심에 둡니다. 국어과는 그 대상이 문학 작품이고, 미술과는 미술 작품이 대상이 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미술과 학습 목표는 「작품을 감상하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 있다.」 이고, 국어과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교사는 문학 작품의 느낌에 대하여 친구들끼리 대화를 주고받고 소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감상능력을 좀 더 정교화하고 구체화하는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미술 감상은 미술 작품의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즐기는 활동으로써, 감상을 통하여 감성, 지성, 감정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감흥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문학 작품과 미술 작품은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이 학생들의 흥미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교사는 다른 작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학생들의 경험을 담고 있고, 학생들의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용으로 쓴 시(이혜영, 동생 때문에)와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미술작품(김홍도, 서당)을 학습 목표 ‘작품을 읽거나 보고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와 ‘작품 감상하기’ 라는 주제로 묶어서 융합 수업 설계를 한 것입니다.

주제	성취 기준 (학습목표)	교수·학습 활동
작품 감상하기	문학(5) 작품을 듣거나 읽거나 보고 느낀 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감상)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할 수 있다.	반응 준비 - 제목 보고 이야기 나누기 반응 형성 - 작품을 읽거나 보고 질문 만들기로 내용 파악하기 반응 명료화 - 형식적인 요소와 내용적인 요소로 깊이 있는 질문 만들기 - 작품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 공유하기 - 작품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표현하기 반응 심화 -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은 작품을 수용하고 학생들의 감상 능력과 미적 체험을 통해 작품 수용과 표현의 수준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학작품과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문학과 미술이라는 다소 낯선 결합에서 오는 혼란을 겪어야했지만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측면과 작품을 보는 심미안적 시선을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도는 우리 수업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작품 감상하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학 작품과 미술 작품을 접하고 단계별 학습 활동을 유목화하여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은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문학 작품과 미술 작품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응 심화 과정에서 다른 작품과 관련짓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은 작품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02. 질문으로 연결하기

질문은 개인의 사고를 정교화하고 개념을 세우는 데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나는 궁금증을 질문으로 나타낼 때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질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고와 사고를 연결 지으며 질문은 또 다른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작품과 작품, 텍스트와 그것을 읽는 대상, 작품과 그것을 보는 대상 역시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내 안에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나와 연결 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다고 칩시다. 친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 별일 없어?” 또는 “ 그 동안 잘 지냈니?” 개인과 개인이 질문으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국어 수업으로 가지고 오면 전화를 거는 사람은 텍스트를 대하는 사람이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텍스트라고 생각해볼까요?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통해 그 텍스트에 대한 것을 알고 그 텍스트가 가진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은 텍스트와 나와 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문학 작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되겠지요. 대상과 텍스트의 연결은 비교적 단순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시의 내용을 하나하나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학생들에게 이해영의 ‘동생 때문에’와 김홍도의 ‘서당’을 보여주고 제목만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대상과 텍스트를 질문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반응을 준비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처음 느낌을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작품과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요. 다음 질문들은 텍스트의 첫인상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교사의 개입 없이 짝 활동을 통해 질문하고 대화하면 됩니다.

“서당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목을 왜 서당이라고 했을까요?”

“그림 속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동생 때문에 힘든 적이 있나요?”

“동생이 있나요?”

텍스트의 숨은 뜻을 찾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사는 의도된 질문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질문과 질문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나 이제부터 동생 할거야. 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는 학생의 질문은 생각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시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고 인물의 마음에 공감을 해야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좋을 때 그런 말을 하지요. 동생의 어떤 면이 부러웠을까?”라고 묻습니다. 어떤 학생이 “동생이 부럽다기보다는 형이라서 억울해서 동생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라는 학생의 질문에 교사는 다시 “그러면 형이어서 억울했던 일이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서 교사의 사고와 사고를 연결하는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학생들은 인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경험도 함께 이야기 하면서 작품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해집니다.

질문으로 연결하기의 진수는 작품과 작품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와 이야기를 질문으로 연결하기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와 사고, 작품과 대상, 질문과 질문, 대상과 대상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질문으로 연결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작품과 작품을 질문으로 연결함으로써 작품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작품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같은 종류의 작품이라면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 작품과 미술 작품을 질문으로 연결하는 것은 교사가 사전에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교사는 핵심질문을 가지고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단위 시간 내에 학생들에게 물어야할 핵심질문을 준비하여야하며 ‘수업 단계마다 또는 활동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학생들의 배움과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합니다.

“「동생 때문에」에 나오는 오빠의 마음과 「서당」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질문을 듣고 두 작품을 비교하고 두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며 인물의 마음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교사는 위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학생의 대답에서 전체 학생에게 연결시켜야할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통해 학생들 간의 사고를 연결시키고 또 학생의 대답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되물도록 하여 작품에 대한 반응을 충분히 공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의 삶이

다양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에 따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주변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작품을 질문으로 연결하지 않았다면 두 작품을 개별적으로 보게 되어 풍부한 느낌 표현도 힘들고 감성적인 접근과 감정이입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제가 비슷한 다른 작품이나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살펴보도록 유도하여 폭넓은 작품을 접하게 해 주는 것도 작품 수용 능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03. 새로운 이야기 만들기

융합수업을 했던지 주제통합 없이 단위 차시를 가지고 수업을 했던지 간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야 합니다. 만화영화 ‘구름빵’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수업을 한 1학년 근우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미소빵’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야기를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마친 4학년 유진이는 웃음 총을 가지고 외할머니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1학년 현정이는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고 등장인물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여 말하는 수업을 마치고 내 친구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친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체나 텍스트의 이야기가 아닌 그것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갖도록 하는 것은 국어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국어 수업 특히 문학 작품을 가지고 하는 수업은 등장인물의 삶의 방식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인정해가면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국어 수업을 설계할 때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어떻게 이끌어낼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끌어낸 사고가 학생 개개인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늘 염두에 두고 수업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1학년 학생들과 만화 영화 ‘구름빵’을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을 계획할 때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도록 하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질문으로 접근해야 할까?’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구름빵’ 그림책이 있어서 제목을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텍스트와의 관계를 형성한 후 그림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질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만화 영화 ‘구름빵’을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빵을 만들고 싶어요?”, “빵에 들어가는 재료는 무엇인가요?”, “그 빵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빵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교사의 질문과 학생들의 대답, 그 대답에 대한 또 다른 질문, 학생들 간의 질문 등으로 학생들은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학년일수록 자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사소한 경험까지도 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중심적인 면이 강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재주꾼 오형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오형제의 모습을 상상하여 보라고 하였습니다. 표현이 워낙 상세하여 학생들은 등장인물의 특성을 금방 파악하여 말하였습니다. 현정이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하였습니다. 준경이는 등장인물에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무지개 물고기에 나오는 초록

줄무늬 물고기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1학년 준경이는 자신의 행동이 친구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늘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품 속 인물의 마음, 모습 행동을 상상해보는 수업 하면서 초록 줄무늬 물고기에게 위로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는 교사의 질문에 준경이의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초록 물고기에게 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기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텍스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를 허용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학습목표를 근간으로 학생들의 학습내용과 방법을 계획할 때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기 삶을 드러내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텍스트와 대상과의 사이에 질문이라는 장치를 장착하고 충분한 텍스트 이해를 토대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학생들의 정서와 감정의 바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 수용과 반응의 수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표현의 욕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면서 느끼는 정서적 감동으로 스스로 치유함을 얻는 것은 인간 누구나가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